



‘데이터베이스 2002 도쿄’ 전문적인 DB 전시회로 자리매김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분야 업체 관심 높아



오숙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연구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구성한 해외 DB쇼 참관단은 2002년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동안 도쿄 국제포럼 전시홀에서 열린 일본 최대 규모의 데이터베이스 전시회인 'Database 2002 Tokyo'에 다녀왔다.

Database 2002 Tokyo는 데이터베이스·프로듀서, 데이터베이스·디스트리뷰터, 데이터베이스 관련 비즈니스, 디지털콘텐츠 전반, 소프트웨어 벤더 및 SI, 하드웨어 벤더, 지리데이터베이스, GIS, 특허정보 등 IT 전반에 걸친 전시회이다. 또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최신 기술 및 동향에 대한 정보 및 관련 최신 제품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향후의 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 전시회로 미국 Infotoday, 영국 Online Information과 더불어 세계 3대 DB쇼 중에 하나로 그 전통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제너럴 데이터베이스 존(General Database Zone),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존(Database System Integration Zone), 특허 데이터베이스 존(Patent Database Zone), 매핑 데이터베이스(Mapping Database)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존, 모바일 데이터베이스 존(Mobile Database Zone)으로 나누어져 넷케이 신문, 아사히신문, 제국데이터뱅크(주) 등 94개 업체가 참가했다.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분야 업체 관심 높아

각 신문사들은 자사의 전쟁 전의 기사들을 DB화해 집중적으로 소개·판매하고 있었으며, PDA나 모바일을 통해서도 기사 DB를 제공하고 있다. XML, 콘텐츠 검색 등의 부스도 눈에 띄었다.

다른 부스보다 많은 업체들이 참가했던 매핑 데이터베이스



(Mapping Database)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존은 1990년대 이후 빠르게 발전하는 GIS 분야의 성장을 한눈에 보여 주었다.

올해로 18회 짝인 Database 2002 Tokyo 전시회는 5, 6년 전만 해도 우리의 SEK이나 컴텍스코리아와 같이 제품발표회 수준의 전시회였으나, 올해는 '전문적인 DB전시회'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전시회의 운영방법이나 참가자들의 마인드 역시 데이터베이스 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었다.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 검색을 조용한 가운데,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고 시연해 볼 수 있는 전시회로서 특히 GIS, XML, DL(Digital Library)솔루션(기록관리 분야 포함), 특허정보 분야, 신문기사서비스, STN, Lexis/Nexis 등 해외 정보서비스 분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분야를 체계적으로 시연해보고 검색할 수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전문DB전시회로 자리잡았다고 평할 수 있는 행사였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디렉토리북, 브로슈어, 기타 안내 자료 등이 모두 일본어로만 되어 있어 일본어를 모르는 해외 참관객들은 전시회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고,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은 허락을 받아야 가능했다.

Database 2002 Tokyo 전시회의 참가업체 정보는 OnExpo사이버전시관(www.onex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Database 2003 Tokyo 전시회는 2003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닛케이텔레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용빈도 1위

1999년도에 데이터베이스 신고제에 의해 접수된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체 수는 189개 업체이다.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일본 내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수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용 가능한 전체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해외 데이터베이스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본 데이터베이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분야별 현황을 살펴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비즈니스 분야 데이터베이스 수는 감소하고 일반 분야 데이터베이스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0년의 일본 기업의 72.1%가 현재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의 이용률은 78%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8.2%로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용빈도가 높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는 닛케이 텔레콤이 1위이며, JOIS가 2위, PATOLS가 3위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경유한 데이터베이스 이용빈도는 닛케이 텔레콤이 1위를 차지하고 JOIS, DIALOG 순으로 나타났다.

제국데이터뱅크, 기업정보 DB 모바일로 제공...직접조사로 신뢰 높아

전시기간 중에 방문했던 제국데이터뱅크사는 1900년 3월에 설립된 회사로 기업정보를 서비스하는 회사이다. 전국 83개 지사와 1500여명의 조사원을 통해 기업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기업 정보는 자체평가를 거쳐 온라인 및 모바일로 DB화해 제공하고 있다.

정보서비스 제공업체의 가장 큰 사업기반은 '신뢰성'에 있는데,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을 위해 제국데이터뱅크사의 조사원들은 연간 143만건에 달하는 조사의뢰에 대한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회사에 대한 정부 및 국민들의 신뢰성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었다.

제국데이터뱅크사는 상식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업전자 인증제도'를 주관해 진행하고 있다. 기업전자 인증제도란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전자증명을 뜻한다. IC 카드에는 고유 번호가 있어 자사의 기업정보는 볼 수 없으며 입찰할 때 사용한다고 한다. 제국데이터뱅크사에서는 기업에게 1년 8000장(전체 5만여장 발급) 정도의 전자인증 증명서(IC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기업이 파산하지 않는 한 그 인증서는 고유하다고 한다. 